

트럼프, 코로나 부양책·예산안 서명

연방정부 예산 섰다온 하루 앞두고 2조3000억 달러 패키지 예산안 실업자 등 보호조치 중단위기 벗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총 2조3000억달러(2520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인 이날 밤 서명을 통해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9000억달러(약 986조원)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1조4000억달러(약 1534조원) 규모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21일 예산안을 처리한 뒤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

통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지원금 최고액을 600달러(66만원)에서 2000달러(219만원)로 늘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서명을 미뤘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이 고갈될 이후인 29일부터 부분적 섰다온(일시적 업무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실업자를 위한 추가 보호 조치는 아예 중단됐다. 미국에선 지난 3월 2조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면서 평소엔 실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프리랜서와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됐는데 전날 종료됐다. 또 주(州) 정부 자금이 부족하면 연방정부가 13주간 추가로 보조하는 긴급실업보상 프로그램이 이달 말 시한을 앞두고 있었다. 이들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이는 14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의회가 두 프로그램을 11주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늦어지면서

법안이 실행되지 못할 위기였다. 실업자 보호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역시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다면 이달 말 종료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자·세입자 보호 조치가 중단되고 연방정부가 문 닫을 위기에 주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즐겨 비난을 불렀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미루면 '파괴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압박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을 한다"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마음을 바꾼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날 서명 서명을 내기 전에 트위터에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남겼으나 부연은 없었다. /연합뉴스

북한 '80일전투' 막바지 자력갱생 강조

"누구도 우리 돕지 않는다" 노동신문 외부지원 거부 뜻 고수

북한이 '80일 전투' 막바지를 맞아 외부지원 없이 스스로 시련을 이겨내는 자력갱생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 특유의 투쟁정신, 창조본능' 제목의 논설을 통해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며 우리가 강대해지고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믿을 것은 오직 자기의 힘뿐"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교훈은 남을 믿고 바라보며 자기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하루아침에 말아먹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지 못하면 자그마한 시련과 난관 앞에서 주저앉게 되고 사회주의의 궤도에서 탈

선하게 된다"며 정신 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2800자 분량의 논설에서 자력갱생이라는 단어를 24번 반복하면서 '80일 전투'야말로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세웠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웠던 점을 언급하면서 "비관에 빠져 남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가치를 들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해 국내 연구·개발·생산단위와의 긴밀한 협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즐기게 됐다"고도 자평했다. 북한은 이른바 '삼중고'에 빠진 상황에서 외부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날 논설에서도 또다시 자력갱생을 강조한 만큼 다음 달로 예정된 노동당 8차 대회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내년 1월 5년 만에 8차 당대회를 열고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대내외 정책노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스위스 스키장서 격리대상 영국인 수백명 도주

변이 코로나 확산 우려 방역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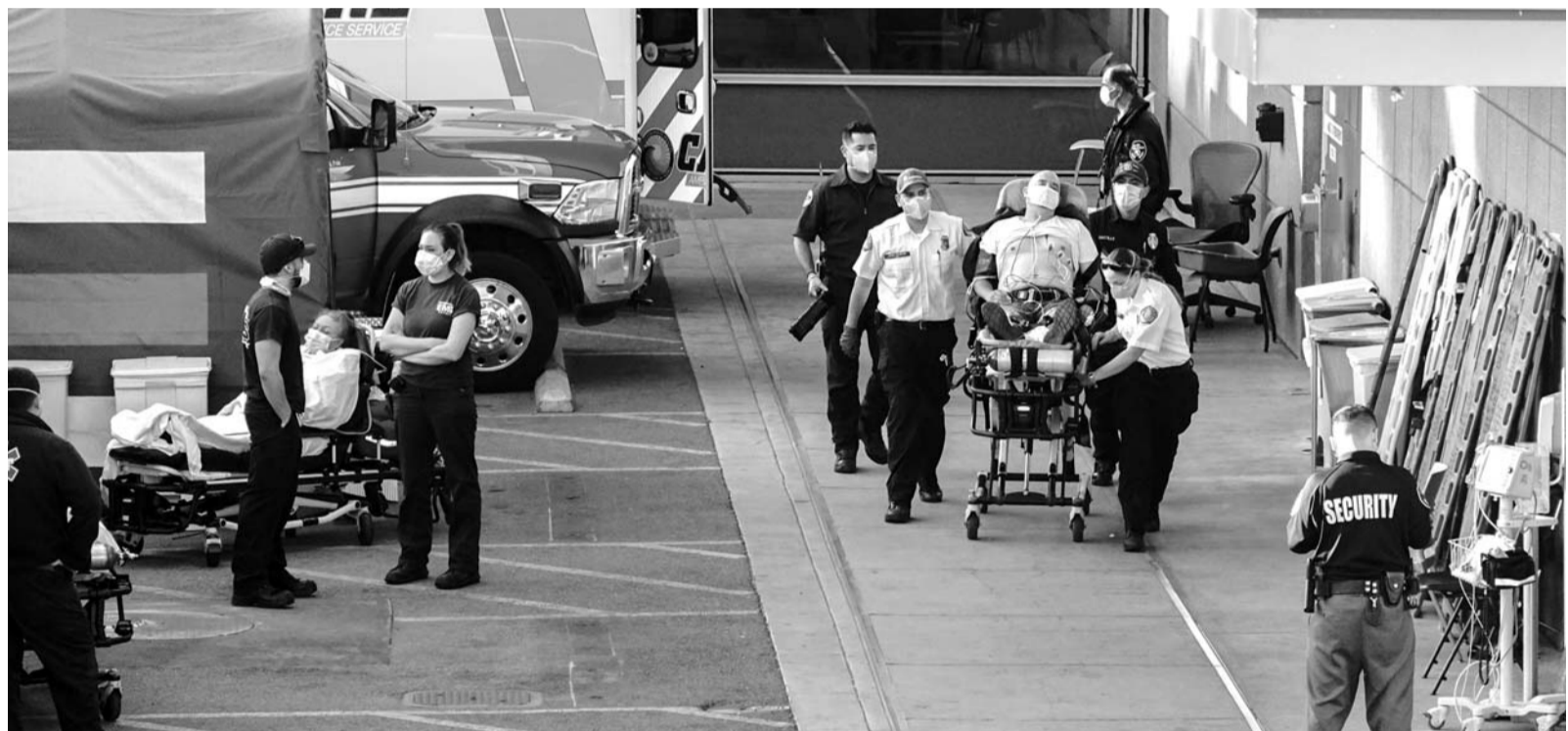
스위스 스키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 지시를 받은 영국인 관광객 수백 명이 '도주' 해 현지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독일 도이체 벨레(dw)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베르비에의 스키 리조트에서 격리 중이던 영국인 관광객 200여 명이 몰래 숙소를 빠져나갔다. 당국은 격리 대상자 420명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이 중 일부는 프랑스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는 21일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 이후 영국에서 온 모든 입국자들에게 열흘 간 자가 격리할 것을 명령했다. 이 조치는 세계적인 스키 휴양지인 베르비에에 묵고 있던 영국인 관광객에도 적용됐다. 베르비에에는 영국인이 통상 겨울철 관광객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즐겨 찾아 현지인들엔 '작은 런던'으로도 불린다. 현지 당국은 "격리 대상자 대다수가 하루 정도는 지참을 지키다가 몰래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영국 관광객들의 도주 사실은 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식사에 손을 대지 않은 점을 숙소 측이 확인 후 드러났다. 당국은 현재로서는 영국 관광객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는 '탈출' 한 숙소에 전화를 걸어 숙박료를 내야 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에서도 영국발 변이 감염 사례가 2건 나온 상황이다. 현재까지 스위스와 한국을 포함해 40여 개국이 변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발 입국을 제한했다. /연합뉴스

미국 내슈빌 차량폭발 용의자 현장서 자폭

단독범행 추정...동기는 미궁

미국의 성탄절 아침을 뒤흔든 테네시주 내슈빌 시내 한복판의 차량 폭발 사건 용의자가 현장에서 자폭했으며,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27일(현지시간)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내슈빌에 거주하는 63세의 앤서니 킨 워너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전날 자택을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사람의 유해가 워너의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사건에 이용된 캠핑용 차량(RV)이 워너가 등록한 RV의 차량 번호와 같다는 점을 알아냈다. 수사를 주도한 미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는 "워너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이번 폭발에 연루됐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당

국은 범행 동기에 대해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내슈빌에서는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께 시내 한복판에 주차돼 있던 캠핑용 차량이 폭발해 3명이 부상하고 40여 채의 주변 건물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 25일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해당 차량에서 60년대 유명 팝송이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총격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의 RV에서 15분 후 폭발이 터질 것이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지금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것을 들었다. 이윽고 한 팝송이 차량에서 흘러나왔고, 음악이 끝난 직후 RV는 폭발했다. 이 음악을 들은 한 경찰은 일부 가사를 기억해 내고 나중에 다른 동료들 통해 페들라 클라크의 '다운타운'이었음을 알게 됐다. /연합뉴스



미 코로나19 확진자 1900만명 넘어서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2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일 만에 100만명이 급증하며 1900만명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중국 코로나 산발적 감염 속 백신접종 시작

중국 베이징(北京)과 다롄(大連) 등 중국 각지에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각 지방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28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시시는 이날부터 고위험군 및 해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무료로 시작했다. 선전시 당국은 5개 의료 센터에서 무료 백신을 접종하고, 해외 취업자, 유학생, 냉동식품 업계 종사자, 격리시설 관계자, 의료기관 및 대중교통 종사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이다. 선전시 외에도 충칭시와 저장성, 산둥성, 허난성, 안후이성 등 지

역의 주요 도시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안후이성 허페이에서는 지난 이틀 동안 1000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고, 무양에서도 냉동식품 종사자 60명이 이미 백신을 접종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앞으로 더 많은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후에는 고위험군 외에도 일반 대중에게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대학 공공위생학원 부원장인 왕웨이(王培玉)는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시작되면 코로나19 감

염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도시가 백신 접종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안정세를 유지하던 중국에서도 산발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문제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중국 의학 전문가들은 중국 기원설이 나올 때마다 반론으로 제시하던 냉장·냉동 유통 시스템에 의한 코로나19 외부 유입설을 주장했다.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코로나19를 최초로 방역 당국에 보고했던 장지셴(張繼先) 후베이 중서 의학 종합의원 호흡기 중증 의학과 주임은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콜드체인(냉장 유통망)과 많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18건의 확진 사례 중 4건이 콜드체인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